SM 'K-팝 수출' 1000억 돌파

글로벌 K-팝 열풍이 문화 콘텐츠 수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상장사 수출액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획사들이 2011년에 비해 막대한 수출액 증가를 기록했다.

가요계 양대 산맥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수출을 주도했다. 동방신기(사진)·소녀시대·슈퍼주니어·샤이니 등을 앞세운 SM은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 1036억원의 수출을 기록했다. 2011년(480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싸이와 빅뱅·2NE1의 해외 활약이 돋보인 YG는 534억원으로 2011년보다 수출액을 216억원 늘렸다.

CJ E&M의 음악산업 수출액은 2011년 35억원에서 2012년 158억원으로 4.5배 이상 뛰었다. /유순호기자 suno@

들썩이는 추석 물가… "그래도 과일은 싸요"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둔 8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이들이 선물용·제수용 과일들을 둘러보고 있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올해 작황이 좋아 지난해보다 가격이 각각 8%, 2% 내린 상태로 추석 4~8일전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

결국 쫓겨나는 '샐러리맨 신화'

"일 맡으면 내가 오너" 강덕수 STX그룹 회장 채권단에 의해 사실상 퇴출

대한민국 샐러리맨과 재계·금융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자산(24조원) 기준 재계 13위인 STX그룹 강덕수(사진) 회장이 채권단의 압박으로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대다수 현 대기업 오너와 달리 상고와 야간대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다니던 회사(쌍용중공업, 현 STX중공업)를 자신의 돈으로 산 CEO(최고경영자)이자 오너인 만큼 살아있는 '샐러리맨 신화'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일 STX조선해양 채권단이 박동혁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을 STX조선해양 새 대표이사로 추천함에 따라 퇴진이 임박한 상황이다.

9일 이사회와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변이 없다면 강 회장은 직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룹 지주사인 STX와 STX중공업, STX엔진의 대표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채권단이 돈줄을 쥐고 있어 '완전 퇴진'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다.

◆ 야간대 핸디캡 딛고 오너로

강 회장은 월급쟁이 사이에서 독보적인 인물로 통한다.

인맥과 스펙이 출세 조건인 한국 사회에서 탁월한 업무 감각으로 30대에 부장으로 승진했고 1995년 쌍용중공업 이사, 2000년 쌍용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승장구했다.

강 회장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단문형·순한글 공채 광고를 만드는 등 기획과 마케팅 분야에도 두각을 드러냈고 사원채용 면접을 직접 화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그가 평소 지인들에게 "월급쟁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 일을 맡으면 내가 오너"라고 말한 것은 지금도 회자될 정도다.

IMF로 쌍용그룹 경영난이 악화되자 당시 쌍용중공업 최고재무책임자였던 강 회장은 전 재산을 털어 회사를 인수했다. 월급쟁이에서 오너가 된 그는 2001년 STX를 만들었고 선박 엔진을 중심으로 조선업·해운업 등으로 사업을 늘리며 재계 13위까지 사세를 확장했다.

STX는 출범 10년 만에 2011년 매출 100배 성장, 임직원 수는 900명에서 6만7000명으로 75배나 증가했다. 경쟁 기업 인수가의 2배를 써내는 과감한 인수전은 업계 전설로 남았다. 전 세계가 놀란 성장 속도와 업계 최고 대우 등으로 국내외 유수 인재들에게 STX는 '신의 직장' 중 하나였다.

하지만 STX 성장 엔진이었던 강 회장의 공격적인 투자는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그룹 부실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나오는 STX의 수익 구조는 최대 약점이 됐고 과도한 인수합병(M&A)에 따른 부채 증가는 주가 추락을 이끌게 됐다.

이번 퇴진 사태는 "채권단과 STX 노조, 샐러리맨과 금융계의 대결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채권단의 인사압력 월권논란

노조는 "법정관리가 아닌 사율 협약을 체결한 만큼 채권단이 경영·인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는 입장이다.

반면 채권단은 그동안 STX에 들어간 돈만 5조원이고 앞으로도 3조원의 혈세를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던 대기업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 회장에게 '패자부활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채권단에서는 미래에 들어오고 나가야 할 돈에 초점을 맞춘다. 설립한 지 12년 된 STX가 주요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성훈 정윤희기자 zen@metroseoul.co.kr

졸음 부르는 버스 '꺾기교대' 금지

내년부터 과징금 부과

서울시가 졸음 사고의 주범으로 지적되온 버스기사들의 '꺾기 교대'를 금지한다.

서울시는 8일 꺾기 교대를 해온 시내버스업계 2곳에 개선명령을 하고 전체 업체 64곳에도 꺾기 교대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위반 업체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한다.

꺾기 교대는 변형된 1일 2교대 근무 형태로 첫날 오전 근무(첫차~오후 1시), 둘째 날 오후 근무(오후 1시~막차)를 한 뒤 셋째 날 다시 오전 근무를 하는 것을 뜻한다.

오후 근무 후 바로 다음날 오전근무를 하면 수면 시간이 짧아 졸음 운전을 하기 쉽지만, 그 다음 날 전일 휴가를 얻을 수 있어 기사들이 선호하며 버스업체들도 관행처럼 눈감아줘 왔다.

/김민준 기자

식대·교통비도 통상임금

법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포함시켜야"…노동계 손 들어줘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식대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8일 MBC에 파견돼 취재차량을 운전한 김모(43)씨 등 14명이 용역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 소속으로 MBC에 파견된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업무수당 외에 식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데도 A사가 이를 제외하고 연장 수당을 계산했다며 2011년 사측을 상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후생복지수당, 교통비, 상여금에 대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이런 임금을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530만~35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식대와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도 "이 역시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급여에 포함해 원고들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상임금 정부안을 연내 구체화해 입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저 근육 어때요" 8일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제43회 미스터 YMCA 선발대회에서 여성 참가자들이 근육을 뽐내고 있다. /뉴시스

"일본산 속일라"…명태·돔 등도 이력신고 의무화

관세청은 원산지를 속일 우려가 큰 수입 명태(생태, 동태), 돔 가리비를 오는 16일부터 유통 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긴급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관세청의 유통 이력 관리 품목은 수산물의 경우 9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입품 유통 이력 관리는 2009년 1월부터 원산지 둔갑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해 수입자와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 거래 내용을 관세청에 신고하게 한 제도다.

성묘 미리미리 8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동화경모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미리 성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이석기에 사형 가능한 '여적죄' 적용 추진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주말에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여적죄 역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한다.

국정원은 또 RO의 비밀회합에 같은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민준 기자

잠깐만 / 메트로 포토 캠페인

도 넘은 사랑 – 아픔 되면 '공해' 젊은 연인들의 다정한 모습은 보기 좋지만 지하철 전동차 내부 등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도를 넘어선 애정 표현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랑 표현은 지하철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야 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 제공

영어 'A형' 30% 넘었다

올수능 어려운 B형서 갈아타기 – 반수·재수생 크게 줄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B형을 선택한 비율이 68.2%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일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1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원자는 65만752명으로 작년보다 1만7770명(2.7%) 줄었다"고 밝혔다.

재학생은 전체의 78.2%인 50만9085명, 졸업생은 12만7635명(19.6%), 검정고시 등은 1만4032명(2.2%)이다. 졸업생의 경우 지난해보다 1만4926명(10.5%) 줄어 소위 '반수생'이나 재수생, 삼수생이 감소하는 추세가 강화됐다.

재수생 수가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으로 재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능 성적으로 뽑는 정시 모집의 비중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영어 B형의 선택 비율은 3월 학력평가에서 87.2%를 기록한 뒤 6월 모의평가 82.9%, 7월 학력평가 80.0%, 9월 모의평가는 75.1%로 꾸준히 떨어졌다.

입시업체들은 영어 B형의 선택 비율이 예상했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중상위권 대학이 영어 B형만을 반영하는 데다가 내년도부터 영어 영역에서 수준별 수능이 폐지됨에 따라 쉬운 A형으로 '갈아타기'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가을 잡는 동심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 마련된 벼 논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곤충채집을 하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뉴시스

15일 코엑스서 한·일 '하나로'

한일축제한마당 행사 열려

'한일축제한마당 2013 인 서울'이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는 '희망, 미래로'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공연, 관광, 체험 부스는 물론 기업체 부스도 유치해 더욱 풍성한 잔치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코스프레 사진 콘테스트, 보보존 등 체험 행사도 열린다.

3부로 나눠 열리는 행사의 진행은 일본 여배우 후지이 미나와 한석준·이재홍·성세정 아나운서가 맡는다.

지난 2005년 9월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 우정의 해'로 시작한 한일축제한마당은 올해로 9회째를 맞는다.

한국과 일본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양국 최대의 문화 교류의 장인 한일축제한마당은 명실공히 풀뿌리 교류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2년 행사 때는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축제를 즐겼으며, 한·일 양국의 신문과 방송에서 큰 관심을 갖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일축제한마당 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일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친근감과 연대감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02)702-7775

부모님! 추석때 '채용 합격증' 들고 갈게요

부산고용노동청 12일 벡스코서 '2013강소기업-청년채용박람회'

부산고용노동청은 오는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과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는 '2013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일자리박람회는 올 11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사전 행사로 (주)파안, 삼익통상(주), (주)이랜드리테일, (주)화승R&A 등 지역 강소기업을 포함한 80개 기업이 참가해 870명의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구직자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한 채용관을 비롯해 최고경영자(CEO) 특강, 직업소리검사, 안 적성검사, 이미지 컨설팅 등이 마련된다.

또 청년들이 채용박람회 참가 기업을 직접 방문 체험해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로 기업을 소개하는 참여기업 홍보관도 운영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기업과 구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사전매칭시스템을 도입, 홈페이지(www.korea.jobfair.co.kr)를 통해 사전에 이력서를 제출한 구직자는 현장에서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일대일 면접이 가능하다.

더불어 당일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구직자들을 위해 전문 취업코디가 온라인 사이트와 SNS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의 고질적인 구인 구직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희망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 기업 현황 등 박람회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oreajobfair.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추석연휴 평균 4.8일 쉰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설문
상여금 평균 44만원으로 예상 지출보다 14만원 ↓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장 이해수)는 산하 사업장 조합원 10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산지역 근로자의 추석 연휴 기간은 평균 4.8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연휴 기간은 5~6일이 62.1%로 가장 많았고, 3~4일이 34.7%로 뒤를 이었다.

또 전체 57.9%가 사업장의 추석 연휴 상여금(정기보너스 제외) 지급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60만원대가 24.1%, 40만~50만원대와 20만~30만원대가 각각 36.3%와 30.5%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평균 44만원(2012년 42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추석 연휴 예상 지출 비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58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만원이 증가했다. 이 중 40만~50만원대가 53.3%, 60만~70만원대도 31.5%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소비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방문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0.1%가 '방문하겠다'고 답했고, 이 중 18일을 귀향일로 꼽은 응답자가 37.6%, 19일은 29.4%로 파악됐다.

고향에 머무는 기간은 '1~2일'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35.3%는 고향 방문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그 이유로는 가계지출 부담(53.7%), 다른 여행 계획(20.6%), 짧은 연휴(10.1%) 등의 순으로 꼽혔다.

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공항공사 "청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재동)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종헌)는 지난 4일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청렴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이스탄불-경주엑스포' 벌써 100만 관람

술탄 아흐멧 광장의 한복 행렬 지난 5일(현지시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이 열리고 있는 터키 이스탄불의 술탄 아흐멧 광장에서 한국·터키 한复 퍼레이드가 펼쳐져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제공

개막 닷새 만에 이룬 성과
행사기간 250만 달성할듯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이스탄불을 한국 문화로 물들이고 있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의 인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개막 5일 만에 누적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 눈길을 끈다.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4일까지 100만 9000명이 관람했으며 5일 오후 10시 현재(현지시간) 총 119만 4000명이 엑스포에 다녀갔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런 분위기라면 행사 기간인 23일간 목표 관광객 250만 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사 장소별 관람객을 보면 한국 전통문화 체험장, 실크로드 바자르, 경상북도 23개 시·군 홍보관, 한국 콘텐츠 홍보관, K-푸드 홍보관이 밀집돼 있는 술탄 아흐멧 광장이 60만 명으로 단연 최고로 집계됐다.

한편 경북과 경주의 역사·문화유산, 관광 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경상북도-경주시 홍보관이 21만3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 국회의원 부인 선관위서 경고 조치

울산지역 현역 국회의원 부인 A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27일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A씨와 함께 S새마을금고 B모 이사장도 함께 경고 조치를 받았다.

8일 울산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S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3일 남구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해 김두겸 남구청장, 안성일 시의원,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역 국회의원 명의로 된 표창장을 그의 부인 A씨가 S새마을금고 조합원 김모(여)씨 등 3명에게 수여하면서 20만 원짜리 백화점상품권(총 60만원)을 각각 부상으로 수여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위법성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모른 채 현장에서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해당 국회의원도 표창장 수여에 대한 사실을 몰랐다고 선관위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에 이를 만큼 큰 사항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115조를 위반했다"며 "재발할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명대 잡멘토링' 지역 단체들 팔 걷었다

동명대가 부산인적자원개발원, 부산시설공단, 부산경남경마공원, 부산항만공사 등과 함께 부산 전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잡멘토링을 본격화한다.

동명대는 부산 대표 기업을 포함한 각계 30여 기관·단체의 젊은 실무전문가들을 멘토로 삼아 멘티 대학생 250명에 대한 ▲멘토링데이(월 1회) 및 스페셜멘토링데이 개최 ▲직업 체험 ▲아이디어 경진대회(팀별) 개최 등 직업 탐색과 진로 지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잡멘토링의 분야는 ▲행정·기획 ▲마케팅·홍보 ▲기술(토목·건축·전기·조경 등) ▲문화관광 ▲의료 ▲금융 등이다. 멘토로는 부산지역 기업·공공기관·방송사·병원 등 30여 곳이 참여한다. 잡멘토링의 멘티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사이트(http://me2.do/xAQmTu55)를 통해 할 수 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9-1551
발행·인쇄인 남궁표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은호
부산지사장·국장 김보훈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851-2100
독자센터 02)721-9811

귀로 즐기는 '로맨틱 발레'

24일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폴로베츠의 춤' 등 선사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13 발레음악 시리즈 세 번째 무대로 제45회 정기연주회 '로맨틱 발레 음악'을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수석지휘자 이동신의 지휘로 동양적인 색채와 매혹적인 분위기, 격렬하고 광적인 리듬을 잘 나타내는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 공' 중 '폴로베츠의 춤', 차이코프스키 편곡 '백조' 등 발레음악의 정수를 관객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올해 각국의 시대별 다양한 발레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로맨틱 발레음악의 정수를 관객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또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경성대 교수), 바올리스트 최염석(경북도립교향악단 수석)이 브루흐의 '클라리넷(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을 그들의 탁월한 기량과 해석으로 연주해 관객들에게 화려하면서도 안정적인 선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브루흐의 음악을 선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시스

다우테크, 영신대에 11억 상당 SW 기증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왼쪽)는 지난 4일 양산캠퍼스 천성회관 5층 주작의실에서 다우테크(주)(대표이사 차정호,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오른쪽)와 산학 협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약 2200만원 상당의 솔리드 엣지(Solid Edge, 독일 지멘스사) 소프트웨어 50카피(총 11억원)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산대가 기증받게 된 솔리드 엣지 프로그램은 기계분야 전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세계에 약 50만 개의 라이선스 시트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동래파전 퓨전스타일 모여!

28일 동래시장서 '제1회 동래퓨전파전대회' 예선

부산 동래시장에서 이색적인 행사가 열려 이목이 집중된다.

동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단은 오는 28일과 내달 3일 동래시장에서 '제1회 동래퓨전파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3년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업단은 지역 시장의 특성을 살려 명물 먹거리 개발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행사를 연다며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파전 만들기 비법을 발굴해 동래시장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본 대회는 파전에 관심 있는 부산지역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9월 10일부터 22일까지다. 동래시장 육성사업단 e메일(dongnae2013@naver.com) 또는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dongnae2013)로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오는 28일 예선을 거쳐 내달 3일 본선대회를 갖는다.

동래시장 육성사업단 김영삼 단장은 "본 대회를 통해 동래지역의 먹거리 문화 관광 코스 등을 널리 알려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동래시장이 필수 방문 코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약조쿠키 어떤 맛일까 7일 서부 경남 관광 탐방에 나선 유커(왼쪽 셋째) 관광객들과 청산이 경남 산청군의 농업회사법인 한들레푸드 마을기업을 방문해 약조쿠키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을 송도 '바다미술제'에 빠지다

부산비엔날레 행사 일환
14일 개막 30일동안 열려

부산 송도해수욕장이 오는 14일부터 거대한 미술 작품 전시장으로 변한다.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위드(With) 송도 : 기억 흔적 사람'을 주제로 열리는 2013바다미술제의 출품 작품들과 부대 행사인 축제 행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과 참여 단체들을 확정하는 등 막바지 전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부산 출신의 조각가 박태원 감독이 기획한 이번 전시는 오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30일 동안 개장 100주년을 맞는 송도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11개국의 34점의 작품이 백사장 등에 전시된다. 특히 이번 바다미술제는 야간 관람을 위한 조명과 작품 설명 등 관람객들의 작품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부대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관람객들의 휴게시설로 사용될 '바다살롱'을 비롯해 부산시티투어와 연계한 아트버스, 매 주말 다양한 공연으로 관람객들을 즐겁게 해줄 여러가지공작소, 부산지역 인문학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만드는 '바다미술길',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아트마켓' 등이 준비된다.

적십자 결연사업 '희망풍차'
2800세대 한가위맞이 선물

대한적십자 부산지사(회장 배영길)는 오는 10일 부산 전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에 한가위 사랑의 선물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가위 희망 구호는 부산적십자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가동한 취약계층 결연 사업인 희망풍차의 수혜자 2000세대와 부산시 16개 구(군)의 추천을 받은 800여 세대에 실시된다. 또 취약 세대를 직접 방문해 부식품 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뚝딱뚝딱! 주말엔 철기시대로

울산박물관 가족프로그램 '해피위켄드' 14일 첫선

울산박물관은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 '해피 위켄드(HAPPY WEEKEND)'를 새로 선보인다.

가족 프로그램 해피 위켄드는 울산의 역사와 문화에 흥미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상설 전시와 연계되고 진행된 얘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박물관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스타트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울산박물관 2층 체험실에서 '뚝딱뚝딱 나는야 철기공방 대장장이'라는 주제로 울산의 철기 문화, 파라핀을 이용한 철기 유물 만들기, 전시실 학습 등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관내 4~6학년 초등학생을 포함한 10가족(40명 이내)이다.

신청은 울산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ulsan.go.kr)를 통해 9일부터 11일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문의 052)229-4731

젊은 남자여, 책 좀 읽어라 여성 모델들 '섹시한 유혹'

metroRussia

러 홍보 포스터 '논란'

최근 모스크바 국제도서박람회 개막을 기념해 러시아도서연합이 이색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도서연합은 책을 잘 읽지 않는 러시아 젊은층을 겨냥해 섹시한 포스터와 광고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포스터와 광고에는 매력적인 여성이 등장, 요염한 포즈로 독서를 하며 자신의 이상형은 지적인 남성이라고 말한다.

'엑스모' 출판사의 마케팅팀장인 블라디미르 지체린은 포스터를 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젊은층을 겨냥해 독서를 장려하고 있다"며 "중·장년층에게 독서를 장려하기는 이미 늦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체린은 "현재 러시아 젊은층의 독서 실태는 최악의 수준"이라며 "젊은 세대의 40%가 독서를 하지 않으며 지난 일 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스터의 홍보 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며 "특히 젊은 남성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에로틱'한 포스터를 본 뒤 자연스럽게 독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서와 성적인 부분을 접목한 이 홍보물이 적합하지 않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독서 장려 효과만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홍보물을 제작할 생각"이라며 "젊은 여성들을 위한 포스터와 광고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심리학 박사 이리나 아이라파즈는 "여성이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5대 요소에 지적 능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독서 장려를 위해 성적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효과도 없다"고 말했다.

/다리야 부미노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일본 도쿄 '방사능 불안' 딛고 2020 올림픽 유치… 아시아 최초 두번째

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도쿄가 선정됐다고 발표하자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정부 관료들이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우쭐 아베' 우경화 가속

올림픽 후광효과 활용 집단 자위권·개헌 등 밀어붙일듯

아베 신조 총리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유치로 거침없는 '아베 질주'를 이어간다.

8일(현지시간) 아베 총리는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쿄 올림픽을 15년간 계속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기폭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로 국민적 주목을 받는 데 성공한 그의 돌파력은 올림픽 유치로 빛을 봤다.

특히 5~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도중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장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날아가 막판 선거운동을 벌인 점은 그의 승부사 기질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올림픽 유치에 대형 악재로 작용한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에 대한 그의 위기대응 능력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

올림픽을 이용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50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위기를 넘겼다는 평가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와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압승하면서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닦았다. 여기에 올림픽 유치로 국민적 인기와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향후 아베 내각은 국내외 현안을 처리할 때 과감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초 결정을 앞두고 있는 소비세 인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등 민감한 경제 현안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개헌 등 정치·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올림픽 후광효과를 계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미기자 seonm@metroseoul.co.kr

'도쿄 탈락' 릴레이 오보… 속마음 들킨 中언론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일본 도쿄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중국 CCTV와 신화통신이 오보를 내보내 망신을 샀다.

CCTV는 8일 오전 12시30분(현지시간) 올림픽 개최지 1차 투표가 끝난 뒤 같은 표를 얻은 터키 이스탄불과 스페인 마드리드가 결선 투표 진출자를 가리고자 재투표를 하는 상황에서 도쿄가 탈락하고 이스탄불과 마드리드가 진출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 역시 이스탄불과 마드리드가 2위를 놓고 재투표를 한 것을 결선 투표로 착각했는지 이스탄불이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오보 사태가 중국인의 '속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올림픽 개최가 반갑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미기자

발바닥, 발가락 통증? 더 이상 참지마세요!

발바닥에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하거나,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하게 전기통하는 느낌이 든다면 지간신경종(몰톤씨신경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는 지간신경종은 처음에는 발가락이 갈라지는 부분인 발바닥의 앞쪽에 무언가 이물질을 한 겹 붙여놓은 것처럼 느낌이 든다거나 마치 모래를 밟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각이 이상하기도 한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리고 심하면 통증까지 느껴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병원에서 엑스선을 찍어보고 허리가 원인인가 싶어 허리 MRI도 촬영하고, 혈관문제인가 싶어 혈관조영술을 해봐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걷는 것마저 힘들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현대인의 발은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다

발은 신체의 모든 뼈 중 5분의 1이 몰려 있고 평생토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인다. 최근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발의 작은 통증 하나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한다.

'예쁜 발-작은발' 이라는 통념이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여성들은 발이 크면 미련해 보일까봐 발이 작고 날씬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에 생기는 지간신경종을 주의해야 한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박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서 눌려 붓는 질환을 말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져서 몸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발바닥의 앞쪽 부위가 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중년 여자 분들에게 흔히 발견된다. 가끔 발바닥 통증을 허리쪽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제법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부산에서도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치료해

부산에서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등 족부관련질환을 전담하여 케어하는 족부클리닉을 운영중인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몸을 지탱하는 받침대인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오묘하게 움직이지만 어느 한 곳만 이상이 생겨도 보행에 필요한 균형을 잃고 연쇄적인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며 "발가락은 한 번 변형되면 다른 발가락을 변형시키고 무릎, 허리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형과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손과 발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이 중요한 손과 달리 발은 체중을 부담하여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행을 편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치료해야 하며 발이 불편하면 보행이 틀어지므로 무릎, 엉치, 척추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

디스크, 하지정맥류, 혈관장애 등으로 오인, 오랜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간신경종은 매우 다양한 감각이상을 호소하나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린다. 특히 발가락과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뼈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 부위는 발바닥중에서 체중의 압박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한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뻗치고 때론 발이 시리거나 뜨겁다고 호소한다. 특히 상당수가 막연히 발이 저리다고 하는데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경을 잘라내지않고 절골술을 시행, 지간신경종의 원인을 제거한다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지 않고, 중족골 사이에 끼어서 붓게 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통증,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의 이준호 원장은 지간신경종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법을 시행하여 수술 부작용을 더 줄이고, 재발의 걱정도 덜어준다. 그러면서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부담도 덜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market index <9일>

코스피 1955.31 (+3.66)
코스닥 523.77 (-4.29)
금리 2.91 (변동 없음)
환율 1092.50 (-6.00)

한화건설 '비스마야 신도시' 창조경제 시범사례로 선정

한화건설이 지난 4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국토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글로벌개발협력포럼에서 '해외 신도시 개발 창조경제 시범 사례' 기업으로 선정돼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개발 창조경제 사례'를 발표했다. 한화건설 신완철 상무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공사에는 100여 개 협력업체와 1500여 명의 국내 인력들이 진출함에 따라 연인원 55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난감 중고사이트 클릭!

중고나라·아이베이비 등 인기·흥정 잘하면 할인

김민지 기자의 짠순이 주부 경제학

아기를 낳아 기르기 시작하면서 엄마들은 유아용품과 전쟁을 해야 한다.

쏘서, '점퍼루', 바운서 등 연령에 따라 필요한 장난감들은 왜 이리 많은지… 별천지가 따로 없다.

하지만 팍팍한 살림을 생각하면 값비싼 장난감들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렇다면 중고 유아용품 사이트를 활용하면 어떨까.

제값 치르고 사기에는 부담스럽지만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버리기엔 아까운 유아용품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중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좋다. 우선 회원 수가 많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사이트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장난감의 정품 여부도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를 꼭 물어봐야 한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를 활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고품의 묘미는 가격 흥정이 아닐까. 여러 가지 제품을 한꺼번에 구입하거나 가격이 조금 비싸다면 에누리를 할 수 있다. 단 지나치면 서로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부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 중고 사이트로는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와 아름다운가게(www.beautifulstore.org), 아이베이비(www.i-baby.co.kr)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하나, 고장 난 장난감을 고쳐주는 '장난감 병원'도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 역사에 있는 녹색장난감도서관 내의 '키즈뱅크'에선 매주 목요일 고장 난 장난감을 수리해준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키즈뱅크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녹색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seoultoy.or.kr)에서 회원 승인을 받고 이용할 수 있다.

/mind@metroseoul.co.kr

건설단신

쌍용건설 'DTL 921' 현장 싱가포르 안전대상 수상

쌍용건설이 시공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서도 세계적 인정받았다. 지난 1일 열린 싱가포르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노심지하철(DTL) 2단계 921 현장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발주해 현재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을 치밀하게 평가해 수여하는 안전 관련 최고 권위의 상이다.

뉴욕패션위크에서 뉴욕 모델 에린 왓슨이 '갤럭시 기어'를 착용한 모습 /삼성전자 제공

'갤럭시기어' 뉴욕패션위크 등장 화제

삼성전자의 스마트 손목시계 '갤럭시기어'가 뉴욕 패션위크에도 등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린 뉴욕 패션위크에 갤럭시 스튜디오를 마련, 갤럭시기어와 갤럭시노트3, 2014년형 갤럭시노트10.1 등을 전시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갤럭시기어는 차별화된 패션 아이템으로 뉴요커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삼성전자는 뉴욕 패션위크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행사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차재원기자

와! 사무실 유지비용 제로

신논현역세권 비즈니스센터 '더좋은 비즈스퀘어' 탐방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이른바 비즈니스센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비즈니스센터는 1~5명이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월 단위로 임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 강남과 같은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 스타트업 기업에 적합하다.

서울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에 위치한 비즈니스센터 '더좋은 비즈스퀘어'에서 공간과 문화를 체험했다.

입구에 들어서기 전 지문인식기가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30실 가량에 근무하는 전 직원의 지문을 저장할 수 있다. 휴일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인 만큼 출퇴근 보안이 중요하다. 사무실은 1명이 쓸 수 있는 것에서부터 최대 5명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까지 다양하다. 인원 수에 맞춰 책상과 의자가 설치돼 있고 책장이 2~3개가량 제공된다.

사무실 공간은 티테이블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다. 그야말로 일에 집중하는 구조다.

대신 회의실 두 곳이 따로 있다. 이곳에서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다. 또 손님 접대나 직원 기분 전환을 위한 카페도 마련돼 있다. 컵만 있으면 커피, 휴지는 무료다.

임대료는 역세권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1인용이 35만원에서 시작하고 5인실은 145만원까지 받는다. 창과 공실의 유무에 따라 가격은 달라진다. 1년 이상 장기 계약 시 5% 할인된다.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전기세와 같은 각종 생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초고속 인터넷, 복사기, 팩스기, 스캐너, 정수기 이용료는 물론 경제 신문도 공짜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무실을 이용하려면 월 4시간 초과 시 추가 비용을 내야 하고 공용 화장실을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일반 오피스텔과 달리 숙식이 불가능한 것도 비즈니스센터의 특징이다.

노인성질환 있어도 무심사 가입

라이나 '실버암보험' 화제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가입 나이에 제한 또는 인수 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한 것.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 상품으로 고안됐다.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함께 개발했다.

IPTV 'UHD 시장' 선점 경쟁

LG유플 이어 SK브로드밴드도 12일 시험방송

IPTV 업계와 케이블TV 업계가 초고화질(UHD) TV 시장 선점을 위해 불꽃튀는 경쟁을 펼친다.

UHD TV 방송은 기존 풀HDTV보다 4배, HDTV보다 16배 이상 선명한 초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는 방송 기술로 뛰어난 현장감을 제공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LG유플러스가 IPTV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UHD 시험 방송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12일 SK브로드밴드가 UHD 시험 방송 송출 시연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별도 전용선이나 테스트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망(광랜 100Mbps)을 활용해 UHD 시험 방송에 성공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LG유플러스와 같은 방식으로 UHD 방송을 송출할 전망이다.

케이블 업계는 내년 상용화를 위한 준비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5대 복수케이블TV사업자(MSO)들은 지난 7월 UHD 전용 채널을 개설, 시험 사업을 실시했으며 LG전자는 케이블 내장형 UHD TV를 개발해 이를 지원했다.

케이블 업계는 2017년까지 6400억여 원의 시설 투자, 2016년까지 콘텐츠 수급에 809억여 원의 투자를 통해 조기 상용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스&뉴스

'8·28 전월세 대책' 약발? 서울아파트값 2주째 상승

● 8·28 전월세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이번주 0.02% 올라 2주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재건축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 매매가도 오름세로 전환됐다.

특히 재건축이나 매매 가격에서 전세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일부 매기가 살아났고 중소형 아파트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고속도로 휴게소 21곳서 현대차 특별점검 서비스

● 현대차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21개 지점에서 추석 특별점검 서비스를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는 귀성길인 하행 휴게소에서 17~18일, 귀경길인 상행 휴게소에서는 19~20일에 진행된다.

현대차는 각종 오일류와 타이어 공기압 등 장거리 운행에 필요한 항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KT 황금주파수 홍보 '달콤하네' KT는 8일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A 서비스 개시에 앞서 서울 홍대 디지털 등지에서 행인들에게 황금초콜릿을 나눠주며 황금주파수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알리고 있다. /KT 제공

경제위기 속 '비상등' 끈 경제팀

정론탁설
유병철 <언론인>

지금 우리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성적인 저성장의 그늘 속에 겉모양은 그럴듯하나 속으로는 중병을 앓고 있다. 비록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117위이다. 그것도 삼성의 반도체와 휴대전화, 현대의 자동차 등 몇몇 업종에 의존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를 걷고 있으며 심각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서민들의 바닥 경기는 얼어붙어 있다. 1000조원을 넘나드는 가계부채를 비롯해 하우스푸어가 늘어나고 전례 없는 전세대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외교 안보에 대한 신뢰도 덕분에 60%를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 분야에서는 이런 평가를 내리기조차 어렵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지난해 19위에서 25위로 밀려 한 해 사이에 6단계나 내려갔다. 말레이시아보다도 낮다. 지난주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면서 한국의 고질병 중의 하나인 노동 시장의 효율성 하락이 크게 작용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노사협력 부문은 148개국 가운데 132위 정도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성숙되지 않은 금융시장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해 사이에 71위에서 81위로 밀려났다.

우리 경제는 고른 분야에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 능력은 기대 이하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려고 해도 백약이 무효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 소비 수요가 막혀있으나 속수무책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 조절 능력을 살리지 못한 채 소득세법 개정안을 어설프게 내놓아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다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인사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또한 무상보육 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나 금융기관 등의 노조가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벌여도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주요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이번 9월 정기국회 역시 파행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실상을 직시하고 비상 체제를 갖춰야 한다. 사실 현오석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경제 회복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느슨한 정책을 폈다는 반증이다. 경제부처가 늦은 밤에도 불을 끄지 않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에 올인 하기를 대다수 국민은 갈망하고 있다.

日 애니 대부의 '마지막 선물'

뉴스룸에서
조성준 <연예스포츠부장>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의 홍보를 위해 지난 7월 하순 일본 도쿄 외곽 자신의 작업실에서 한국 취재진과 마주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일본 군국주의 미화 여부 등 작품 속 역사관을 캐묻는 기자들의 날선 질문에 72세의 노구를 이끌고 때론 일어서면서까지 무척 성심성의껏 답했다.

재패니메이션의 신(神)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진보적 지식인으로 추앙받는 미야자키 감독이 그 와중에 "별것 아닌 문제로 한·중·일의 사이가 나빠져선 안된다"고 말한 대목에선 기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별 것 아닌 문제'가 마치 "과거사에 쓸데없이 매달리지 말자"는 의미로 들렸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그는 간담회가 마무리된 뒤 추가 발언을 요청했다. 담담한 어조로 "별 것 아닌 문제란 아베 정부를 뜻한다. 곧 물러날 아베 현 일본 총리로 인해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는 얘기"라며 속뜻을 설명했고, 그러자 이번에는 일본인 스태프가 웅성거렸다. 칠순의 노감독이 혹시라도 아베 정부로부터 설화를 당할까봐 꽤 걱정하는 눈치였다.

50년 넘게 자연을 사랑하고 평화를 노래해오던 미야자키 감독이 지난주 은퇴를 선언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웠다. 본인은 "체력적 한계를 느꼈고 이제는 일 만큼 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아베 정부와 이로 인한 일본 사회의 퇴보 움직임이 창작의 의욕을 뺏어간 게 아닌가 싶어 매우 속상했다.

이번 작품에 대한 일부 한국 관객들의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 주력기였던 제로센의 설계자 호리코시 지로를 다룬 걸 보니 미야자키 감독도 이젠 다 됐다'는 비판도 그의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은 아쉽다.

영화를 꼼꼼하게 봤다면 미야자키 감독이 진짜로 말하고자 했던 극의 메시지가 격변의 시대를 살다 간 아버지 세대에 바치는 연민 어린 헌사란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텐데, 무조건 소재부터 문제 삼고 보는 우리네 관람 풍토가 지나치게 예민해 보여서다. 창작자의 의도가 수용자의 해석까지 좌우할 수 없다는 예술 작품의 숙명을 전제해도 말이다.

일본이란 나라와 일본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구석이 있다고 믿는다. 노감독의 담백한 퇴장과 그의 은퇴작을 두고 여기저기에서 쏟아지는 반응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포토프리즘

오랜만에 활기 찾은 노량진 수산시장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7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이 오랜만에 북적이는 손님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추석 대목에 이 정도면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숫자"라며 "이번 정부 조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진영기자 son@

'다니엘서'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성서의 '다니엘서'에는 고대 페르시아 바빌론 제국의 멸망에 이어 알렉산더 제국 역시 로마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있다. 사자 굴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으로 유명한 다니엘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제국에 포로가 되어 끌려간 유대인들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성서학자들은 '다니엘서'가 실제로 쓰여진 것은 기원전 3세기라고 보고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를 계승한 한 갈래인 셀레우코스 제국에 의해 대학살의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에피파네스 4세는 헬레니즘을 단 하나의 성역과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 이를 거부하면 광기에 찬 폭력을 휘둘렀다. 따라서 '다니엘서'의 예언은 미래보다는 당대의 고난을 말하는 동시에 이것이 끝날 날이 오리라는 희망의 선포이기도 한 셈이다.

1931년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계 작가 E. L. 닥터로는 1971년 소설 '다니엘서'를 세상에 내놓는다. 이 책은 1953년 재판 당시부터 무죄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원자폭탄 제작 기밀을 소련에 넘겼다는 죄명으로 사형당한 유대인 로젠버그 부부 사건을 소재로 했다. 1950년대 냉전시대의 집단 히스테리 매카시즘을 비판하기 위해 이 소설을 집필한 닥터로는 로젠버그 부부를 떠올리게 하는 아이작슨 부부의 아들 다니엘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다니엘은 자신의 부모가 어떤 사유로 사형 당하게 됐는지를 추적해 나가는데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베트남전 반대 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반이다. 반전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전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를 말한다는 것은 성역을 침범하는 일이 됐고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다니엘은 이런 시대적 모순의 벽을 뚫고 나가는 인물로 그려진다.

다큐멘터리 '천안함 프로젝트'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해 마치 한 권의 뛰어난 추리소설처럼 논리적으로, 그리고 매우 흥미진진하게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증언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그런데 이 영화 상영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일종의 성역 침범이라는 것이자, 이는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는가? 그러나 하나의 기준만 진실이라고 통용되는 순간, 그것은 생각의 자유에 대한 폭력이 된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신이 나의 재판관이다'라는 뜻을 가졌다.

전업주부는 돌아가고 싶다

기자수첩
박지원 <생활경제부 기자>

스타벅스가 출산이나 육아 부담으로 퇴사한 스타벅스 여성 근로자를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재취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에 경력단절 여성 근로자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란다.

최근 스타벅스처럼 워킹맘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 및 제도를 마련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육아 및 가사 전념자 수는 721만9000명, 15세 이상 인구 6명 가운데 1명꼴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결혼과 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거나,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비경제활동인구다.

그러나 수많은 워킹맘들은 다시 일하고 싶어한다.

실제로 두 달 전 CJ그룹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인턴 150명을 뽑는 데 2530명이 몰려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또 지원자 73%는 "직장을 그만둔 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여성들이 결혼·출산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같은 치열한 현실을 뚫은 '리턴십' 여성들은 10월 말부터 현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취업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취업 여건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충분치 않다고 말한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집에만 들어앉아 있다면 경제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주부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유부남 A – 20세 연하 ‘포차밀당’

연예가 소곤소곤

▶유부남 스타 A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불타오르는 여성 편력을 자랑했습니다. A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시내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자신보다 스무 살은 어린 20대 여성을 처음 소개 받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겼는데요. A는 게임을 주도하며 노골적으로 여성에게 술 공격을 퍼부었고, 여성이 취하자 지인들은 마치 계획한 듯 두 사람만 남겨두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러자 A는 능숙한 솜씨로 취한 여성을 어르고 인근 숙박업소로 들어갔는데요.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많은 이들이 보는데 A가 불순한 마음으로 여성에게 접근했을 리가 없다. A는 술도 사고 휴식도 제공해주는 진정한 매너남일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 일베 논란 크레용팝 홍보 강화

최근 '빠빠빠'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 걸그룹 크레용팝의 소속사가 기자 출신을 새로 영입해 홍보 라인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표절과 일베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물론이고 "선물 대신 현금을 받아 기부하겠다"던 계획이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 미숙한 언론 대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때문에 주변에서 "주먹구구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홍보 전문가를 채용하라"는 권유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그중에서 특히 가요 홍보는 영화나 방송에 비해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 그래서 메이저일수록 홍보 파트에 신경을 많이 기울인다"면서 "크레용팝의 소속사도 최근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홍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것 같다"고 귀띔했습니다.

▶ 정우성 '절친' 이정재 동네 이사

연예계의 둘도 없는 '16년 절친' 이정재와 정우성이 이웃사촌으로 지내게 됐습니다. 이정재가 살고 있는 강남 삼성동의 한 고급 빌라에 정우성이 이달 말 입주하는데요. 이정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어쩌다 보니 함께 살게 됐다. 매일 함께 술을 먹을까봐 걱정인데 안 그러려고 한다"면서 멋쩍게 웃었습니다. 또 "영화 '태양은 없다'를 함께 찍은 후 늘 동반 출연할 수 있는 작품을 찾고 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우성이 자신의 감독 데뷔작에 출연을 제의한다면 당연히 하겠다"는 말로 오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연예부

★보르코시건 시리즈★
명예의 조각들
12화 글·그림 이기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metro entertainment E

상큼하게 절절하게… 양다리 사랑중!

드라마·연극 종횡무진

이·윤·지

이윤지(29)에게 올가을은 가장 바쁘고 운도 따르는 시기다. 지난달 31일 KBS2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과 연극 '클로저'를 동시에 선보였는데, 둘 다 초반부터 순항 중이다. 그는 "체력적으로 힘들어 홍삼을 먹으며 버티고 있지만 같은 날 신고식을 잘 치러 행복하다"면서 특유의 선한 미소로 활짝 웃었다.

드라마 '왕가네' (왼쪽)와 연극 '클로저' 에서의 열연 모습

● 왕가네 셋째딸 '내숭 제로' 캐릭터 연기 행복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은 왕가네 셋째 딸 왕광박이다. 내숭 없고 뚝 부러진 소리도 곧잘 해 바람 잘 날 없는 왕가네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해내지만 작가의 꿈을 안고 교사직을 그만둔 후 작업의 골칫덩이로 전락하는 인물이다.

시청률은 이미 방영 2회 만에 20%를 돌파했다. "지금도 감사하지만 감히 더 욕심을 내고 싶다. '왕가네'에 한번 빠지면 모든 게 재미난 에피소드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다들 잘하니 이번 나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작품에 자신 있어 하면서 스스로는 겸손해 했다.

왕가네 식구들의 독특한 이름이 특히 재밌다. 광박의 언니는 수박(오현경)·호박(이태란)이고, 남동생은 대박(최원홍)이다. 배우들 중 가장 늦게 투입됐다는 이윤지는 "광났다"는 말로 광박으로 캐스팅된 기쁨을 표현했다.

"오현경·이태란 선배는 근사한 언니들이에요. 실제로 언니가 없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언니들의 보살핌을 받을 때면 마음이 간질거리죠. 광박이가 식구들을 생기고 꿈을 찾아가고 또 새로운 사람을 겪는 동안 좌충우돌하겠지만 앞으로 펼쳐질 성장기가 벌써부터 기대된답니다."

특히 광박이 자칭 대표 선수남인 '나쁜 남자' 최상남(한주완)에게 취재를 빌미로 접근해 티격태격 로맨스를 펼쳐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벌써부터 각자의 이름을 한 자씩 딴 '상박' 커플이라는 애칭도 생겼다.

"한주완씨는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도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생일이 한 달 정도 차이 나서 더욱 친구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장면을 함께 고민하고 서로 도와주곤 해요.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상박을 많이 사랑해주시도록 열심히 할게요."

● 2년 전부터 출연 꿈 꾼 뉴욕배경 연극 '클로저'

기분 좋게 드라마를 촬영하는 까닭에 무대에 와도 즐거운 에너지가 이어진다. "시청률이 잘 나와서 마음이 흥기분하고, 선배들이 관박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기뻐요. 그래도 페 끼치지 않게 캐릭터 전환을 잘해야 한다고 늘 생각해요."

광박이와 앨리스의 공통점? 나쁜 남자에 잘 반하는 거죠

드라마에선 상큼한 사랑을 그려내고 있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가슴 아픈 사랑을 펼친다. 부고전문기자 댄과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뉴욕 출신 스트리퍼 앨리스를 열연 중이다.

"앨리스는 순수하면서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여성이에요. 나도 그처럼 첫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눈에 반한 경험이 있죠. 물론 이번 드라마에서나 연극에서나 상대역이 나쁜 남자 기질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니 매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하하."

이 작품에 참여한 건 같은 소속사의 문근영이 계기가 됐다. 2년 전 연극 데뷔작인 '브루트'를 하는 시기에 문근영이 앨리스로 참여한 '클로저'의 대본을 봤고 언젠가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마음을 굳으니 늦게나마 기회가 찾아오더라. 당시 근영이가 출연한 '클로저'를 봐서 이번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연극을 하게 되면서 무대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연극을 끝내고 집에 가도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에요. 선배들이 늘상 말하던 무대의 에너지를 요즘에서야 피부로 느끼고 있죠. 벌써 다음 연극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난답니다."

/박은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star bag

열애 결실… 이순재 주례로 결혼

연기자 어현수와 정하윤이 8일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이날 결혼식의 주례는 이순재가, 축가와 사회는 김범수와 어컨이 각각 맡았다. 같은 소속사에서 처음 만나 1년여의 교제를 거친 어현수와 정하윤은 두 달 전 결혼 사실을 알렸고, 식이 끝난 뒤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19세때 부모에 집 선물한 '효녀돌'

걸그룹 2NE1의 공민지가 8일 방송된 KBS2 '맘마미아'에서 계약금으로 부모에게 집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공민지의 어머니는 "딸이 열여 살 때 받은 계약금으로 집을 샀다"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소속사(YG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 열여섯 살 때 데뷔했다. 새 집에 들어갔을 때 눈물이 났다"고 밝혔다.

상영중단 된 '천안함[illegible]' 기자회견

정지영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들이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 중단 사태와 관련해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정 감독이 제작한 '천안함[illegible]'은 천안함에 얽힌 의문점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7일 메가박스로부터 "상영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의 시위 예고로 현장 충돌이 예상된다"며 상영 중지 통보를 받았다.

中사천성 자선콘서트 5000명 운집

한류스타 김현중이 5000여 중국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현중은 6일 중국 쓰촨성 청두시 쓰촨실내체육관에서 한중 문화센터의 주최로 열린 '2013 사신성 한중 문화 교류 자선 콘서트'에 참여해 '젠틀맨', '유어 스토리' 등을 열창했다. 김현중은 쓰촨성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5월 1억원을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이의정 '거짓 파산' 들통

6년전 소득 은닉 '빚탕감'

배우 이의정(사진)이 6년 전 파산 결정을 받을 당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장신구 회사를 운영하던 이의정은 2006년 9월 파산을 신청해 이듬해 12월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으로 빚을 탕감받았다. 그러다 김모씨는 이의정이 2006년 영화 제작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는 등 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며 2008년 12월 면책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 이는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면책 취소 사유가 뒤늦게 드러났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원심의 면책 결정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이의정을 재차 면책했으며, 김씨는 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했다.

/유순호기자

길다! 티아라 '왕따 그림자'

1년전 모델계약 해지됐던 샤트렌 광고물 철거 늦자 반환금 4억 집행정지 소송 재판부 "피고에 손해" 기각

걸그룹 티아라가 1년 가까이 '왕따 논란'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왕따 논란을 이유로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패션업체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모델료 4억원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해 7월 멤버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며 논란을 빚자 샤트렌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티아라 측도 이에 합의하고 4억원의 약속어음을 반환했지만, 샤트렌 측이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합의 이후 약 2개월 동안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철거 비용이나 시간 때문이지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입장에서는 오히려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경우 이미지가 손상될 염려가 있었다"고 원고에 대한 기각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티아라는 지난해 9월 이후 국내 활동을 중단했고, 멤버인 은정이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에서 하차 통보를 받는 등 거센 후폭풍에 시달려왔다. 이후에도 멤버 교체가 이어지는 등 어수선한 팀 분위기를 수습하지 못해 국내 복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은 결국 큐리·보람·소연·은정·효민·지연 등 6명의 원년 멤버로만 팀을 재정비하고 새 출발을 선언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정규 2집 '트레저 박스'로 오리콘 앨범 주간차트 4위를 차지했다. 티아라는 해외에서의 인기를 등에 업고 올해 말 국내에 컴백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허리 끊어질듯한 통증 오래 묵히면 큰일

유상호병원이 알려주는 만성 골반통증의 원인과 치료법

최근 만성 골반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환자들은 자신의 질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골반 주위의 근육, 인대 손상이나 석회에 의한 병변을 간과하고 대부분의 골반 통증을 단순히 요통에 의한 점이통으로만 간주해 진단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이에 대해 유상호병원 유상호(사진) 병원장은 "요즘 골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골반 통증과 고관절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성 요통은 척추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의 이완에 의해서 발생하는 디스크, 협착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런 요통은 골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또 골반에 직접적인 병변이 없어도 요통 자체에 의해 둔부와 골반의 연관통 및 전이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요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골반통과 고관절 통증의 원인 질환으로는 우리가 흔히 바리기 빼었다고 할 때 발생하는 장요인대 이완의 손상'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골반 외측 근육 부착부의 손상이나 좌엑낭염, 좁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쪼그리고 앉을 때 발생하기 쉬운 고관절 전방 관절순의 손상, 스포츠나 과다 직업으로 인해 흔하게 일어나는 골반 후방 햄스트링 근육 부착부의 손상, 골반의 석회성 건증 등이 있다.

> 인대 손상이 원인일때 프롤로 인대 강화주사 석회성 건증일 경우엔 초음파 유도하 제거술

게다가 하지로 내려가는 정상 좌골신경은 이상근이라는 근육의 밑을 지나 하지로 나와야 하는데 이상근을 뚫고 나오거나 표층을 지나는 이상근 증후군 등이 골반 통 및 고관절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골반 통증의 발생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료법 역시 각기 다르다.

우선 좌엑낭염, 관절순 및 근육과 인대 손상의 경우 프롤로 인대 강화주사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인체에 무해한 고삼투압 용액을 병변 부위에 정확히 저 주사해 손상된 힘줄과 인대를 재생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법이다. 석회성 건증의 경우 가는 주삿바늘을 이용해 석회를 직접 제거하고, 석회가 빨리 녹는 약물을 주입하는 초음파 유도하 석회제거술(FIMS)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이상근 증후군은 수술적 인 자르기가 필요할 수 있다. 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주사로는 일시적인 호전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이는 근원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질환이 반복되면 주위 근육에 더 큰 손상과 석회화를 초래할 수 있다.

유상호 병원장은 "대부분의 골반통 환자는 요통과 골반통을 동시에 앓고 있으므로 경추, 요추 등 척추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능력뿐만 아니라 골반 및 고관절 통증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푸르밀 "임신부 장 건강 책임집니다"

중앙C&C '매터니티스쿨' 신제품 'Dole프리미엄' 협찬

유산균 발효유 '비피더스'로 잘 알려진 유가공 전문기업 푸르밀(옛 롯데우유)이 이달부터 임신부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개 강좌 '매터니티스쿨'에 제품 협찬을 시행, '임신부 장 건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앙C&C에서 주최하는 매터니티스쿨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기 강좌다.

푸르밀에서 매터니티스쿨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푸르밀의 프리미엄 신제품인 떠먹는 요구르트 'Dole프리미엄'이다.

프로바이오틱 비피더스 유산균이 함유된 프리미엄 떠먹는 요구르트로 세계적인 청과 브랜드 돌(Dole)에서 품질을 인증한 과육이 들어 있다. 푸르밀 관계자는 "많은 여성들이 임신 후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장 정착률이 높고 변비 개선 등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제품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Dole프리미엄은 딸기, 복숭아, 블루베리, 파인애플 등 총 4종으로 가까운 할인매장과 슈퍼에서 판매한다.

푸르밀은 이번 협찬을 통해 Dole프리미엄이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제품임을 알리면서 배 속 아기들까지 향후 고객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푸르밀 관계자는 "푸르밀의 대표 상품인 '비피더스'를 비롯해 앞으로 출시될 신제품으로 품목을 다변화해 푸르밀의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수기자

바쁜 연예인들도 10분이면 디스크 치료 끝

가수 휘성도 치료받은 강남초이스병원 고주파 특수 내시경 시술 눈길

논산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하다 얼마 전 전역한 가수 휘성은 제대 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군 복무 당시 급성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휘성은 담당 주치의 강남초이스 병원 조성태 병원장으로부터 제4요추~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재발을 진단받았다. 휘성은 국소마취하에 10여 분간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을 받았고 바로 퇴원할 수 있었다.

◆짧은 시술 시간으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도 치료 가능해

1년 전부터 강남 초이스 병원에서 시행했던 이 시술은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와는 달리 국소마취하에서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을 위치시킨 후 10여 분간의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해 탈출된 추간판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조성태 병원장은 "이 시술은 다른 시술에 비해 길지 않은 시술시간과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력이 약한 고령자나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으로 인해 수술이 힘든 환자들도 시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술이 어려운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환자 및 노인에게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란 방법도 적용하고 있다. 1.5mm 굵기의 관으로 내시경을 병변 부위에 집어넣어 직접 아픈 부위를 들여다보면서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돌출된 디스크 부위에 레이저를 쏴 염증을 제거하면서 신경근 유착을 없애고 디스크의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술이다.

◆근본적인 치료가 먼저

질환에 따라 경막외 신경 성형술, 고주파 디스크 치료 또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등 여러 시술을 하며 시술 이후 재발 방지 및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병행하고 있어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병원 측은 말했다.

강남 초이스 병원에서는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등 4명이 질환, 나이, 증상에 따라 환자 개인을 전담한다. 이들은 통합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체계화해 환자의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두는 1대1 맞춤형 치료를 시행한다.

특히 이들은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두는 '도수 감압 운동 치료'에 중점을 두는데 도수 치료는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척추뼈를 바로잡고 눌린 신경을 풀어줘 압박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통증을 덜어주는 치료다.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감압 치료는 디스크 내 압력을 감소시켜 손상되거나 퇴행된 디스크를 정상 디스크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 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병원 측은 말했다.

현재 강남 초이스 병원은 서울대입구역에 본원이 있고 홍대입구역에 전문 치료 클리닉 및 척추 관절 비수술 치료 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10~20대 키 크고 마른 남성 '기흉' 조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년간(2007~2012년) 기흉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술을 받은 환자의 절반이 10~20대 젊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기흉 전체 진료인원은 2007년 2만4000명에서 2012년 2만6000명으로 연평균 1.9%씩 증가했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남성은 2만3000명, 여성은 4000명이 진료를 받아 남성이 여성보다 6배가량 많았다.

특히 2012년 전체 수술 환자 1만2000명 중 10대가 34.3%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1.8%, 30대 10.6%, 70대 8.9% 순이었다.

홍기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기흉은 주로 10대에서 20대 후반 사이 야위고 키가 큰 체형의 남성에게서 흔하게 발생하고 흡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을 경우 발생률이 높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metroseoul.co.kr

이대의료원 위·대장암협진센터 '비빔밥 만들기' 행사 이대의료원이 최근 위·대장암협진센터 개소 3주년을 맞아 이대목동병원 3층 이화홀에서 환자들 오색 예쁜 건강 비빔밥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순남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유권 병원장, 정상설 교수를 비롯한 위·대장암협진센터 의료진들은 환자 및 가족들과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치유를 했었다. /황재용기자

시카고 컵스 임창용이 8일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AP 뉴시스

시카고 컵스 임창용 빅리그 데뷔전 ⅔이닝 무실점

초구는 직구 약속 지켰다

14개중 13개 '뱀직구'

임창용(37 시카고 컵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무실점 호투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로써 그는 이상훈-구대성-박찬호에 이어 한·미·일 프로야구 무대를 모두 밟은 네 번째 선수가 됐다.

임창용이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취재진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임창용은 8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경기에서 팀이 3-4로 뒤진 7회초 1사 마운드에 올랐다. ⅔이닝 동안 3타자를 상대로 볼넷 1개와 안타 1개를 내줬지만 병살타 1개를 뽑아내며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팀은 3-5로 패했다.

일본 야쿠르트 시절 등번호인 12번을 달고 3번째 투수로 나선 임창용은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첫 타자인 숀 할턴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메이저리그 데뷔 첫 공은 91마일(약 146㎞)짜리 낮은 직구였다.

2번째 타자로 야쿠르트 동료였던 아오키 노리치카를 맞이한 임창용은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에서 투심 패스트볼로 승부를 걸었지만 좌전안타를 내주면서 1사 1, 2루의 위기에 처했다.

3번째 타자 진 세구라를 상대로 초구부터 역시 투심 패스트볼을 던져 유격수 정면 병살플레이를 유도했고, 아웃카운트 2개를 얻어내면서 7회를 무실점으로 마친 뒤 8회초 알베르토 카브레라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이날 투구 수 14개 가운데 13개가 직구였고, 변화구는 아오키에게 던진 체인지업이 유일했다. /조성준기자 when@

멍군! LG 하루만에 선두 탈환

정성훈 역전 2점포 힘입어 삼성에 5-4 '승'

가을잔치 진출을 사실상 확정지은 LG가 '예비 한국시리즈'에서 삼성을 따돌리고 하루만에 선두에 복귀했다.

LG는 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4번타자 정성훈이 역전 2점 홈런을 포함해 3타수 3안타의 맹타를 휘두른데 힘입어 5-4로 승리했다.

마무리 봉중근을 8회에 조기 투입하며 삼성의 막판 추격을 따돌린 LG는 전날 패배를 설욕하고 다시 1게임 차 단독 선두로 나섰다.

주말 2연전에서 양팀은 1승씩을 나눠 가졌지만 올 시즌 맞대결 성적에서는 LG가 8승7패로 다시 앞서 나갔다.

3-4위가 맞붙은 목동구장에서는 넥센이 박병호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두산에 6-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4연승을 달린 넥센은 3위 두산을 반게임 차로 좇았으며 결승 홈런을 날린 박병호는 시즌 27호를 기록해 이날 역시 홈런을 날린 최정(SK 26홈런)을 1개 차로 따돌리고 홈런 선두를 지켰다.

인천 문학구장에서는 SK가 경기 초반 대량 득점으로 NC를 10-6으로 물리치며 넥센과의 승차를 4.5게임으로 유지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갔다. 난타전이 벌어진 광주구장에서는 한화가 KIA에 8-7로 역전승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전적 8일

■잠실

팀	1-3	4-6	7-9	R
삼성	100	000	120	4
LG	200	100	20X	5

[illegible]

■목동

팀	1-3	4-6	7-9	R
두산	000	220	010	5
넥센	000	210	12X	6

[illegible]

■문학

팀	1-3	4-6	7-9	R
NC	000	000	213	6
SK	160	010	20X	10

[illegible]

■광주

팀	1-3	4-6	7-9	R
한화	202	000	121	8
KIA	004	002	100	7

[illegible]

김세영 짜릿 역전승

유소연 제치고 3억 상금 추가

김세영(20·미래에셋)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한화금융 클래식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김세영은 8일 충남 태안 골든베이골프장 오션·밸리 코스(파72·6천57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를 기록,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유소연(23·하나금융그룹)과 연장 승부를 벌였다.

18번 홀(파4)에서 열린 연장전에서 김세영은 파를 잡아 파 퍼트를 실패한 유소연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올해 4월 프로 데뷔 후 첫 승을 거둔 김세영은 시즌 2승째를 기록했으며 우승 상금 3억원으로 시즌 상금(4억8827만원)에서도 선두로 도약했다.

'연장 끝내기' 신난 추신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의 추신수(31 오른쪽)가 8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LA 다저스와의 홈경기에서 결승 득점을 올린 동료 릴리 헤일턴을 번쩍 들어 올리며 연장 10회말 4-3 끝내기 역전승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이날 추신수는 4타수 2안타 1득점으로 올 시즌 43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한편 LA 다저스의 류현진은 허리 통증을 딛고 12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 선발 등판할 것으로 전해졌다. /AFP 뉴시스

프로축구 전적 8일

홈	득점	득점	원정
울산	2	1	강원

[illegible]

홈	득점	득점	원정
전북	0	3	포항

[illegible]

홈	득점	득점	원정
부산	0	0	서울

만주키치도 없고… 모드리치도 없고…

홍명보호 상대 크로아티아 주전들 대부분 빠진 1.5군

크로아티아 축구대표팀이 홍명보호와 평가전을 치르기 위해 8일 입국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공잡이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와 마리오 만주키치(바이에른 뮌헨) 등 주축 선수들은 동행하지 않아 아쉬움을 자아냈다.

1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평가전을 이틀 앞두고 입국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8위의 강호 크로아티아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한 호텔에 여장을 풀자마자 오후부터 시차 적응을 위한 실내 운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내한한 크로아티아는 모드리치와 만주키치를 비롯해 베테랑 공격수 이비차 올리치(볼프스부르크)와 올라덴 페트리치(무소속), 니키차 옐라비치(에버턴) 등 주전 대부분이 빠져 1.5군으로 평가받는다. /조성준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My friend spent his childhood in California. 이웃과 친구들에 대해 말하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So 누가 길 아래쪽 크고 흰 집을 샀어요?
B Oh, an elderly man rented the house.
A I see. It's a beautiful home.
B I think he is very lucky.

정답 who bought the big white house down the street?

생생영어팁

▶ We have many mutual friends

우리는 서로 잘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We all know each other pretty well (우리는 모두 서로를 잘 알아요.)과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mutual은 '양쪽이 다 해당되는'이란 뜻으로 곧잘 쓰이는 단어이고 mutual friend는 '둘 다 알고 지내는 친구'란 뜻입니다.

ex) He is our mutual friend.
그는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친구에요.

Do you have many mutual friends?
당신들은 서로 잘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형용사

▶ 형용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 명사를 꾸며주거나 be동사 뒤에서 주어를 설명할 때 쓰인다.

명사를 꾸며줄 때	주로 명사 앞에 쓴다
주어를 설명할 때	주로 be동사 뒤에 쓴다

▶ 짧은 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love green shirts. 나는 초록색 셔츠가 좋아.
2. It's cold today. 오늘 날씨가 추워요.
3. She is a beautiful girl. 그녀는 아름다운 소녀예요.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Because of a ______ increase in profits this quarter, Tyro Sportswear employees will receive their first-ever year-end bonus.
(A) dramatically (B) dramatize
(C) dramatic (D) drama

02 No firm can ______ to rely forever only on the strength of its name to sell products.
(A) require (B) afford
(C) suppose (D) depend

01 이번 분기의 급격한 수익 증가로 인해, 타이로 스포츠웨어 직원들은 첫 연말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다.
해설 빈칸 앞에는 부정관사 a, 뒤에는 명사 increase가 있으므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C) dramatic을 쓴다.
어휘 [illegible]
정답 (C) dramatic

02 제품 판매에서 브랜드의 유명세에만 의존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
해설 [illegible] (B) afford를 쓴다.
어휘 rely on ~에 의존하다 strength 힘, 강점 depend 의존하다, 달려 있다
정답 (B) afford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6. 의견 제시하기

의견과 이유 및 근거를 말할 때 쓰는 표현

의견 문장 말하기

I agree that TV has destroyed communication among friends and family.
TV가 친구나 가족 간의 대화를 없애 왔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I prefer to write long reports more than to give speeches.
연설을 하는 것보다 긴 글을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I think that a small company can't successfully compete against a large company.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I would rather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저는 차라리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It is a good idea to complain about a poor product in person.
불량품에 대해 직접 항의하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In my opinion, it is better to be a member of a group than to be a leader of a group.
제 의견으로는 [illegible]